

다이와보 - 2003년 추동절에 “벤타일”을 10억엔 넘게 판매

다이와보는 고밀도 면직물인 “벤타일(ventile)”을 2003년 추동절 상품으로 10억엔 넘는 판매실적을 올렸다.

“벤타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에서 추운 북극지역의 해상근무원들을 위하여 개발된 보호복으로서 장섬유면의 세번수 순면쌍사로 짠 고밀도직물로서, 습기를 흡수하면 면섬유가 팽윤하여 방수성(防水性)이나 발수성(撥水性)도 좋아지면서도 통기성이 좋은 특징이 있어, 용도는 코트(coat) 등의 아우터(outer)에 사용되고 있다.

판매량의 60%는 복숭아 껍질(peach skin)과 같은 솜털처럼 짧고 가늘어 부드러운 기모(起毛)가공을 한 직물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직물들의 용도를 더욱 광범위하게 개발함으로써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를 중심으로 벤타일의 고객층이 넓어지고 있으며 그럴수록 더욱 고객층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